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김은하*

차례

1.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에 대한 칩목을 넘어
2. "누가 존대한 남성의 기득권에 방울이라도 달 것인가"
: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상상으로써 쓰기와 읽기
3. 페미니스트 계몽 서사와 개인적인 것의 정치성
4. 맺음말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1980년대의 박완서는 자본주의의 예리한 비판자로서 문단과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1970년대의 박완서와 달리 사회와 갈등 중인 고독한 작가이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 "이 이야기(『살아있는 날의 시작』를 가리킴-필자)를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내가 접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란 목청 높은 비난 아니면 냉랭한 무관심이였다. 고독한 작업이였다. 고독에 못이겨 주제를 호지부지 하거나 적당히 가당(加糖)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음을 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다."라는 작가의 고백은 재현 가능성을 초과하는 고통의 시대에 '여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쓰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고발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젯거리이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작가의 고백은 급진적인 이념보다 페미니즘의 발화 지평이 더 좁은 1980년대 공론장에서 여성 작가는 ‘뭉 없는 자’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기입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1980년대 진보/보수의 진영론적 이분법이 형성한 ‘담론적 가부장제’는 여성들이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이었던 것이다.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이 여성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종래의 규범과 인습에 대한 순응이나 현실도피적인 즐거움이기 그치고 남녀 평등의 이상을 가진 여성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써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투석’이나 “존대한 남성의 기득권에 방울 달기”로서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박완서의 발화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부상해 1980년대에 고조된 여성의 권리 투쟁들에 상응하는 페미니즘 프로파간다로써 글쓰기의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보여 준다. 박완서는 사회적 상상과 관념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여성과 여성을 포박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나게 그림으로써 여성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촉진시켰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문을 깊이 들여다 보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독서를 여성적 순응이나 도피가 아니라 불화와 계몽의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한편으로, 여성 독자가 자신의 현실과 닮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문학 장을 지배하는 문학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엘리트즘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페미니스트 문화 실천의 한 사례였다.

핵심어 : 박완서,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 진보적 공론장, 세계 여성의 해 선포, 페미니즘 팸플릿, 여성 독자 등

1.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에 대한 침묵을 넘어

박완서는 한국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이지만 그녀의 모든 작품이 충분히 논의되고 온당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박완서의 1980년대에 대한 메타비평적 소설들은¹⁾ 동 시기에 발표된 분단을 주제로 하거나 ‘속물성’을 개발독재기 한국인의 ‘마음의 레짐’으로 묘사한 작품들에 비해 확실히 덜 조명되었다.²⁾ 특히 저자가 “그동안 문학의 도전을 안 받으면서 보호조장돼 왔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억압 관계”를³⁾ 그렸다고 밝힌 여성해방소설(『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⁴⁾ 독서 시장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문단과 학

-
- 1) 박완서의 『저문날의 삽화 2』, 『타타임의 모녀』 등 이른바 ‘운동권’이 핵심 인물로 등장하거나, 여성 해방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들은 진보적 운동이나 이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 1980년대에 대한 메타비평적 함의를 띤다. 여기서는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중심으로 1980년대 비판에 담긴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찾아 보겠다.
 - 2) 이천년 대 들어 문단과 학계는 박완서 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평가를 시도했지만,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비교적 근자에 연구되기 시작했다. 기존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읽기: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15-234쪽; 신승희, 『작중인물과 인식의 체문제: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꿈꾸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35),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 2014, 83-107쪽;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의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17(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23-46쪽;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8(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41쪽.
 - 3)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 작가 후기를 참고할 것.
 - 4)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동아일보』, 1979.10.2.-1980.5.30.): 박완서, 『서 있는 여자』, 학원사, 1985.(『주부생활』에 『떠도는 결혼』으로 연재되었음, 1982.4.-1983.11.):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1989.(『여성신문』, 1989.2.17. - 7.28.) 필자는 1980년대에 발표된 여성문제를 주제로 한 박완서의 수많은 작품들과 구별하고, 또 페미니스트 계몽 서사로서의 급진성에 주목하기 위해 이 작품들을 ‘여성해방소설’로 부르고자 한다.

계는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이 작품들에 대해 거장의 흥결과 미주한 이가 취하는 예의인 양 침묵해 왔다. 이러한 무관심의 이유를 매체소설의 대중성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휘청거리는 오후』(1977) 등 박완서가 매체에 연재한 장편 소설들 중 일부는 ‘창작과비평’ 그룹의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유럽의 리얼리즘 문학에 비견되며, 상업성과 문학성이 결합한 대중문학으로 긍정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글쓰기는 도덕적 질서를 이루고 있던 전통 규범들이 더 이상 사회적 접촉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롭고 무서운 근대 세계가 불리일으키는 불안을 달랠 수는 있지만 묵직한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편견을 깨뜨리며, 박완서는 한국의 압축 근대화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 혹은 역사가로서 문단을 사로 잡았던 것이다.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에 대한 무관심의 사회 심리적 연원은 1980년대 저항 공론장을 통해 진보/보수 진영론이 구축되고, 그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문학사 기술의 한 방식으로 굳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성문제를 민족문제나 계급문제와 무관하게 순전히 남녀대립구도로만 파악하면서 ‘드라마게임’ 류의 유치한 여성권리선언으로 왜곡하는 이런 류의 작품이 진정한 여성해방문학이 될 수는 없다.”⁵⁾

위의 인용문은 1980년대 공론장에 ‘진보적 여성해방문학론’을 들고 나타난 여성 지식인들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에 대한 비평의 한 대목이지만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에 대한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위 필자들이 소속된 ‘여성사연구회’의 문학 분과는 이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1988)에서 “그 비중에 합당한 전체적인 조명을 받은 바가 별로 없다”고⁶⁾ 비평계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5) 이명호, 김희숙, 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67(1), 창작과비평사, 1990, 67쪽.

6) 앞의 글, 204쪽.

박완서 문학을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비평문을 발표해 진보적 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⁷⁾ 그러나 당시 이십 대 중후반의 대학원생이었던 이들 진보적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박완서가 중산층적 삶의 방식에 대한 폭로와 비판 의식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중산층 여성의 경험이나 시각에 머무름으로써 역사적·사회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성 세대 엘리트 여성들과의 이념적, 계급적 구별짓기를 시도했다.⁸⁾ 이들은 특히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골자는 “남녀 대립 구도만을 앞세우는 성모순중심주의에 빠짐으로써 계급이나 민족 같은 사회의 전체 모순과 여성 현실이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총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는 여성계 역사상 유례없이 여성 억압의 기원과 정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시기였는데, 이들 진보적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여성 억압이 사적 소유의 발생으로 인한 계급 사회의 출현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계급 모순과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 성모순에서 비롯되는가’하는 논쟁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별개의 물질 토대를 갖는 이중 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해 관계 속에 통일되어 있다고 보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을 지지했다. 따라서 여성 운동의 주체는 두 가지 억압에 노출된 민중 여성(여성 노동자)이며, 여성 운동은 철저하게 전체 운동 속에서 위치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7) 김경연, 전승희, 김영혜, 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 『여성』(2), 창작사, 1988, 235-236쪽.

8) 1970년대 중후반부터 교육 받은 여성의 양적 확대, 여성학의 수입과 제도화, 여성 운동의 활성화, 시몬느 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 신드롬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합쳐지면서 박완서, 김진옥, 이경자 등 중장년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주제로 한 여성문제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984년에는 서양 문학을 전공한 여성 지식인과 여성지 『여성 동아』 출신의 여성 문인들이 주축이 된 무크지 『여성문학』(출간: 전예원)이 창간되어 페미니즘 이론과 여성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이 수록되기도 했다. 박완서는 여성 동아 출신의 문우로서 여기에 작품을 수록하기도 했다. 진보적 여성해방문학론자들은 친정부적인 ‘여권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중산층 지식인 여성들과도 스스로를 구별 지음으로써 이념적, 세대적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진보적 여성 지식인들은 여성운동을 전체 운동의 하위 범주로 위치지어 변혁 운동의 장 안으로 밀어 넣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초남성적 군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모방 속에서 구축된 1980년대 저항적 공론장에서 마이너 집단이었던 진보적 여성운동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진보적인 여성 지식인들은 독재정권이 가하는 과잉의 폭력과 시민 사회의 무력화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만,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가 침예한 1980년대 공론장에서 여성운동의 진정성 혹은 급진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 저항 공론장은 군부 독재 종식을 통한 민주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사회가 풀어야 할 긴박한 문제로 우선시하고, 여성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했던 것이다.⁹⁾ 더욱이 1960~70년대 학계에서 ‘양심’ ‘지성’ ‘양기주망’ 같은 언어가 지식인 사회에 확산되고, 1980년대에 대학을 중심으로 반체제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 났기 때문에 젊은 여성 지식인들은 진보 진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저항 공론장의 가부장성 혹은 젠더에 대한 몰이해를 비판하며 여성의 해방없이 사회 변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페미니즘을 서구 학문의 수입품이나 중산층 부르주아 문화로 낙인 찍는 운동 사회의 가부장성에 맞서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식으로 이중 전략을 취함으로써 딜레마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했다.

앞서 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에서는 “우리

9) 당시 사회는 여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여성 운동은 개량주의적인 투쟁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1986년 7월에 대중에게 알려진 권인숙 성고문 사건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에게 정치 권력이 가한 폭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점화되었다. 권인숙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국가 권력의 가장 추악한 형태인 고문이 초점이 되어야 하며 여성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여성계를 비판했으며, 권인숙 역시 1심 최후 진술에서 성고문을 여성 노동자에게 가한 공권력의 노동 탄압 문제로 볼 것을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여성사 연구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234-237쪽.

현실의 반민족성·반민중성과 반여성성은 그 본질을 공유하는 있는 문제”,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의 전망을 제시”¹⁰⁾, “여성문제가 전체적인 사회 구조와 고립되어 취급되는 오류”¹¹⁾ 등 여성 운동과 진보적 정치 운동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후렴 어구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상투어구의 빈번한 사용은 비단 이 비평문만이 아니라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과 관련한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시대적 ‘증상(symptom)’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는 상투어구의 남용을 사유의 무능력(불가능성)의 다른 표현으로 보고, 그러한 무능력을 유도, 반복 학습시키는 사회적 관습과 제도적 환경의 일환으로써 전체주의의 감정 구조를 적시한 바 있다.¹²⁾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상투어의 남발이라는 현상은 주체의 다양한 사유를 가로막고 진부한 표현들을 양산하는 문화의 조건으로서 1980년대 저항 공론장의 진보/보수 프레임과 그 남성적 권위를 암시한다. 상투어구들을 “의미와 사상에 대한 추구라기보다 자격과 정체성의 선언”으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진영 논리가 공론장의 규칙이 되었다는 것, 즉 공론장의 의제가 사실상 독점되어 진영과 관련된 이슈만 중요해지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요구는 현실 정치라는 이름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 유행화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¹³⁾

진보적 여성 운동 측이 프레임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여성 해방에 대한 사회적 상상의 지평을 넓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드라마 게임’ 류의 유치한 여성권리 선언”이라는 표현은 여성 운동을 ‘공적인 것’에 대한 위협이

10) 앞의 글, 202쪽.

11) 앞의 글, 228쪽.

12)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한길사, 2006, 106쪽. 아이히만의 세 가지 무능력에 관한 분석을 참조할 것.

13) 권김현영은 진영 논리가 정치의 장에서 힘을 얻어 공론장의 규칙이 되면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들이 억눌릴 수밖에 없음을 2018년 현재로부터 지난 10년 간 한국의 정치에서 남성의 독과점과 여성의 배제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권김현영,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 없다』,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 × 민주주의』, 교유서가, 2018, 137-176쪽.

나 분열로 간주하는 진영론적 프레임을 내면화한 것으로, 여성의 권리 투쟁을 폄하하는 속마음을 은밀히 고백하고 있다. 1980년대 내내 여성 운동은 시종일관 ‘비주류’로, 진정성이 없다는 의심을 면치 못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진보적 집단은 부분적이거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에 사정이 특별히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노동 해방의 낙관적 전망이 고조되었다가 1991년 12월 소비에트의 해체와 이어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으로 혁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직전의 짧은 시간 동안, 진보적 공론장에서는 여성에 관한 의제들이 거의 실종되는가 하면, 변혁 운동의 젠더가 남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가령, 진보 진영에서도 매우 급진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무크지 『문학예술운동』은 총 3회 발행되는 동안 단 한 명의 여성 필자나 여성과 관련한 의제를 실지 않았다. 『창작과 비평』은 1988년에 복간이 된 후 여성해방문학론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미래 정치의 전망을 여성적인 취약함과 좌절을 넘어 강인한 남성 노동자의 승리로 은유하는 등 ‘젠더화된 혁명’에 대한 상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¹⁴⁾

그간 진보적인 학계는 ‘87년 체제’라는 용어를 통해 1987년 6월 항쟁을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어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결절점으로 기술해 왔다.¹⁵⁾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지식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치적, 경

14) 최원식, 임영일 등은 근래 이택주의 『높은 노동자의 노래』, 정화진의 『씻물처럼』 등 현장 출신 작가들에 의해 노동 소설이 창작되는 현실에 반가움을 표현하면서, 1970년대 노동 수기나 소설들은 여성 사업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패배한 기록들이 많았지만 이 소설들은 남성적 노동 공간을 배경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록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1970년대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의식과 운동력을 보여 주어 운동의 공백을 메워 주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좌절의 기록이라고 평가하고, 1980년대 남성 노동자 중심의 노동 운동의 전개를 전 시대 여성 중심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 과정으로 기술하는 담론적 내러티브는 혁명을 남성적인 승리로 상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최원식, 임영일, 전승희, 김명인, 『좌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59, 창작과비평사, 1988, 6-56쪽.

15) 김종업,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작과비평』 130, 창작과비평사, 2005, 12-33쪽.

제적 민주화가 이루어 짐으로써 소수자에게도 계약 주체로서의 시민적 권리가 주어지는 ‘관용’의 시간이 도래해서가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진보 진영이 정치적 전망을 상실해 공론장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페미니즘의 도래라는 사건은 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일단 시동이 걸리면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견고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사실상 ‘87년 체제’ 이후에도 여성이 보편적 권리를 소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여성 해방에 대한 상상 가능성의 등급은 여전히 낮았다. 오늘날 586이 된 ‘386’ 세대 남성 연구자들이 한국문학사에서 1990년대를 탈이념이나 사인화(私人化)한 개인의 시대로 칭하며 오염을 두려워하듯 1980년대와 분할해 여성 작가의 약진과 페미니즘 문학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문학의 연성화(軟性化)’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1980년대의 박완서는, 자본주의의 예리한 비판자로서 문단과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1970년대의 박완서와 달리 사회와 갈등 중인 고독한 작가이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다. 광주 학살의 주범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화 인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남성들은 수배와 투옥을 자처하며 역사의 진보라는 명령 앞에 얼마 간 몇몇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제약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은 자신의 무사한 연명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된 도덕적 자기 비난이자, 진보적 저항 문화가 중산층 여성에게 가하는 모멸의 채찍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살아있는 날의 시작』를 가리킴-필자)를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내

16)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분법적 분할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젠더에 관한 무의식적 통념은 1990년대 이후 제출된 많은 비평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사례로써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진정석, 『1990년대와 탈이념시대의 문학: 소설을 중심으로』, 『새민족문학사강좌 2』, 민족문학사연구소, 창비, 2009.

가 접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란 목청 높은 비난 아니면 냉랭한 무관심이였다. 고독한 작업이였다. 고독에 못이겨 주제를 흐지부지하거나 적당히 가당(加糖)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음을 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다.”라는¹⁷⁾ 박완서의 고백은 ‘광주’라는 재현 가능성을 초과하는 트라우마적 사건에 짓눌린 시대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고발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젯거리이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¹⁸⁾ 고백은 급진적인 이념의 발화 지평보다 페미니즘의 입지가 더 좁은 1980년대 공론장에서 여성 작가는 ‘뭉 없는 자’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기입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진보/보수의 진영론적 이분법이 형성한 ‘담론적 거부장제’는 1980년대에 여성들이 마주한 또 다른 억압적 현실이었던 것이다.

2. “누가 존대한 남성의 기득권에 방울이라도 달 것인가” :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상상으로써 쓰기와 읽기

여성 작가들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남성들이 권력을 독점한 젠더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주어진 성 역할 외 대안적 정체성을 추구할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글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해도 여성 작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검열 문화에 노출되고 “여류”

17)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 387쪽. 작가 후기를 참고할 것.

18) 박완서,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48쪽. 박완서는 여러 편의 글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페미니스트 소설가로 불린 데 대해서 깔끄러운 심정을 내비치는가 하면 자부심을 드러내는 등 다소 고르지 못한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한다.

혹은 “규수”의 글쓰기를 강요당하기 마련이다. 수많은 제약 속에서 전후 한국의 여성 작가들은 순 문예지에 ‘본격 소설’을 발표해 문단에 끼어 들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일간지나 잡지에 선정적 대중소설을 연재함으로써 여성 독자와 함께 사랑과 관능을 주제로 한 여성들의 하위 문화를 주도해 왔다. 대중소설 창작자로서 여성 작가는 지적인 여자/사악하고 섹시한 여자라는 상반된 두 여성이 중심이 된 ‘짝패 플롯’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가부장제에 대한 위반을 시도했다. 고결한 여성 인물들이 겪는 사랑의 수난을 통해 가부장제의 모순을 고발하는가 하면, 사악한 여성의 욕망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여성을 한 몸에 두 개의 이질적인 인격이 존재하는 삼쌍둥이처럼 정의 불가능한 이방인으로 은유하며 상상력의 탈주를 꾀했다. 여성을 자석처럼 남성의 에너지를 끌어 당기거나 혹은 에너지를 불어 넣는 존재, 즉 사회적 병폐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역으로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성녀와 마녀로 분리해 온 상상력의 관습을 비튼 것이다. 그러나 갖은 수난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허물지 않는 ‘숭고한’ 여성이나 환상적 모험을 구가하는 색정광적 여성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며 여성에게 정치적 힘을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이 여성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종래의 규범과 인습에 대한 순응이나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남녀 평등의 이상을 가진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써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박완서는 1984년에 창립된 『또 하나의 문화』의 창립 멤버이자 여성 문인으로 『또 하나의 문화: 여성해방을 위한 문학』(3)의 좌담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에¹⁹⁾ 참석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좌담은 “가부장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피지배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해왔고 사랑, 모성, 순결 등의 개념을 빌어서 여자들의 종속적인 위치를 은폐시키는 견고한 체계”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작가의 가부장

19) 좌담(고정희, 김숙희, 박완서, 엄인희, 조옥라, 조혜정, 정잔경), 『또 하나의 문화: 여성해방의 문학』(3), 또하나의 문화, 평민사, 1987, 14-29쪽.

제에 대한 ‘부역’, 즉 ‘공모’ 관계를 비판하고, 여성의 자유를 일깨우는 실천의 일환으로써 여성해방문학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는 이 좌담에서 “훌륭한 문학이라면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문학과 민중 문학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라며 페미니즘 문학과 민중문학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함으로써 “훌륭한 문학 속에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²⁰⁾ 비판하는 고정희, 조혜정과 미소하나마 갈등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들의 글이 얼마나 남성들의 가치관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 절망스러울 때가 많”다고 고백하며, “여류문학” 즉 “사회가 인정하는 여성적 가치, 여성적 미덕을 내세우는 문학”과²¹⁾ 결별하기 위해 글쓰기의 젠더에 대한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떻게 돌을 던질 것인가, 누가 존대한 남성의 기득권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²²⁾ 질문은 가부장제의 권위나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여성 글쓰기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석’이나 ‘존대한 남성의 기득권에 방울 달기’로써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발화는 박완서가 여성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가 높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상당히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여성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해방소설은 정치 혁명기에 누군가 담벼락에 급히 붙인 격문이나 지하 인쇄소에서 갓 발행한 팸플릿같은 ‘페미니즘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성격을 갖는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남녀 평등’이 사회적 논쟁의 주제가 될 만큼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 평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 시민들이 사회 계약의 주체로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한국여성사에 거의 최초로 여성이 스스로를 계몽이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조직을 형성해 집

20) 앞의 글, 22쪽.

21) 앞의 글, 15쪽.

22) 앞의 글, 29쪽.

단적 규모로 정치 행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해방 공간에서는 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족 운동과 독립 운동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문제가 가시화되었지만 민족문제가 더욱 중시됨에 따라 여성은 부녀로 호명되어 사실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또한 초남성적인 군사 정부의 주도 하에 파시스트적 가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개발 독재기에 여성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출산 조절의 대상이라는 굴욕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여성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여성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75년 유엔의 ‘세계 여성의 해’ 선포를 기점으로 인간의 보편론적 권리의 언어가 등장하면서 성차의 미덕에 관한 지배 담론에 맞서서 여성이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196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인간화’ 담론과 1970년대 초 서구에서 유입된 페미니즘 담론들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 것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가 선포되어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일련의 여성 관련 국제 규범이 가입 국가에서 국내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여성계는 여성의 시민적 지위 향상과 정치 세력화를 피하기 위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선다.²³⁾ 한국 정부가 여성 발전에 대한 UN의 조약 비준에 참여함으로써 여성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자 여성운동 집단이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부의 정책 의제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둘러 싸고 공론장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였다. 1975년 겨울에 조흥은행의 여행원이 결혼을 앞두고 사측의 결혼 퇴직에 맞서 입사 때 서약한 ‘결혼 각서’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기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논쟁이 일어 나고 여성 단체가 여행원의 투쟁에 가세하면서 1976년 5월에 결혼퇴직제는 폐지되기에 이른다.²⁴⁾ 여성이 결혼을 하면

23)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여성계는 여성 문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국가에 요청하게 되며, 그 성과로 1970년대 후반에 들어 부녀 정책은 여성 정책으로 전환된다. 전경옥 외, 『한국 근현대 여성사: 정치·사회 2 1945-1980』, 모티브북, 2011, 183쪽.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통념으로 인해 성차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노동권이 노동 현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지켜져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은 여성의 권리는 대중 소설이나 드라마 속처럼 여성이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며 차분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 또한 남겼다.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선포에 즈음해 여성계는 새롭게 도래할 여성의 정치 혁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계는 1974년에는 “여성의 인간화”를 선언하고, 1975년 3월 5일에는 ‘한국 여성의 해’를 선포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들은 가계 계몽, 소비자보호운동, 사회 봉사 등 기존 보수적인 여권 운동의 주제만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 근로 여성의 임금 상승, 승진의 기회 보장, 근로 조건 개선 등 고용상의 평등권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 관련 단체들과 여성 학자 및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한 ‘전국여성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세계 여성의 해와 한국 여성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부제는 “가족법 개정을 중심으로”였다.²⁵⁾ ‘세계 여성의 해’ 선포에 영향 받아 출판 문화계에도 남녀 평등에 대한 책이 번역되어 소개되는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적 논의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5년을 기점으로 문단과 출판 시장은 ‘여성’ 상품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여성이 마케팅의 주 대상으로 각광 받”²⁶⁾ 문화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프랑스 실존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위기의 여자』가 번역 소개된 해도 1975년이다. 『위

24) 1975년 결혼퇴직제 폐지 운동에 대해서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여성사 연구 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215-225쪽.

25) 김은실,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51, 새얼문화재단, 2006, 52쪽.

26) 유엔의 ‘세계 여성의 해’ 지정이 국내의 출판 문화 시장과 박완서의 소설 창작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1쪽.

기의 여자』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중산층 여성을 관객으로 끌어들이며 페미니즘 문화 운동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86년 4월에 시몬느 드 보부아르 사망에 맞추어 발표된 애도사에서 박완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눈으로 바라”²⁷⁾ 볼 수 있었던 것은 보부르 때문이라며, 한국의 여성 작가와 독자들이 ‘보부르 신드롬’을 경험하며 페미니즘의 언어를 갖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여성의 해에 맞추어 1975년 11월 문학사상사의 초대로 독일 여성 작가인 루이제 린저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루이제 린저의 방한은 “1970년대 초반 인생, 교양, 행복 관련 서적에서 1970년대 중반 여성운동 및 정치 투쟁으로 변모해가는 한국의 실정과 맞물려 있었다.”²⁸⁾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이렇듯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쓰여 졌다. 박완서는 여성 신문의 창간 기념으로 양육권을 둘러싼 싱글 여성의 법적 투쟁을 그린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연재해 가족법의 기부장성을 고발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사회에 대한 상상을 촉발했다. “이번 연재 소설은 메시지가 먼저 설정된 데 대한 불편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박완서는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처음부터 메시지 쪽을 강하게 의식하니까 쓰면서 수없이 갈등을 느꼈”지만 상당히 대중적 재미라는 코드를 감안하면서 썼다고 고백했다.²⁹⁾ 그리고 그녀의 의지와 소망대로 1980년대 여성

27) 박완서, 『위기의 남녀』,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88쪽.

28) 린저는 내한 중 <남성과 여성의 두 얼굴>이라는 강연을 통해 여성을 어머니로만 규정하는 데 반대하며 남녀 동등의 권리를 실현하고 파트너 관계 역시 재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해 선포 이후 국내 여성계의 대응과 루이제 린저의 방한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행선·양아람, 『루이제 린저의 수용과 한국사회의 ‘생의 한가운데’: 신여성, 인생론, 세계여성의 해(1975), 북한바로알기운동(1988)』, 『민족문화연구』 7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67-303쪽.

29) 박완서, 『작가의 말: 순진한 여자 이야기』, 『여성신문』(1989.2.3.) 인터뷰와 관련한 상세한 분석으로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8(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41쪽.

해방소설은 여성 독자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문을 깊이 들여다 볼 기회를 선사함으로써 독서를 여성적 순응이나 도피가 아니라 불화와 계몽의 양식으로 전환시켰다. 이 소설들은 사회적 상상과 관념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환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여성과 여성을 포박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나게 그렸다. 그러자 여성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들의 현실과 닮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소설의 제목이 『떠도는 결혼』일 때는 재미 있는 가정 소설쯤으로 읽히던 것이 『서 있는 여자』가 되자 남녀평등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진 여자들이 찾는 소설이 되었고, 같은 욕구나 갈등을 가진 여자끼리 모인 작은 집단에서 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을 요청 받는 일도 자주 생겼다”는 작가의 고백은 여성해방소설이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을 촉진하는 매개으로써 여성 독자와 작가의 정치적이고도 정서적인 동맹의 형식이었음을 암시한다.³⁰⁾ 교육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줄 언어에 목 마른 상태였으며, 평단에서 외면받은 작품을 발표하고 의기소침한 여성 작가의 창작 의지를 촉진한 것은 여성 독자였다. 박완서는 독자와의 직간접적인 만남에서 부덕의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는 여성 독자의 보수성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지만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절실히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어 고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일깨운 놀라운 경험을³¹⁾ 한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

30) 프랑스 혁명기에 여성 살롱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정치 의제를 토론하고 정치 동맹을 시도하는 상징적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 여성 살롱은 독서와 토론의 장일 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팸플릿이 쓰여지는 창작의 산실이었다. 비판적 이성의 원활한 사용을 증명하는 독서와 토론, 이를 통해 여성 공론장의 형성은 정치 혁명의 주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여성 독서 클럽들의 존재는 흥미롭게 다가온다. 근래 “임금의 연대”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삼십대 젊은 여성들, 즉 ‘영영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는 출판 혁명은 평범한 여성들이 공론장에 무시못할 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기 여성 살롱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31) 작가는 “그 자리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여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읽을 거리

은 문학 장을 지배하는 문학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엘리티즘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페미니스트 문화 실천의 한 사례였던 것이다.

3. 페미니스트 계몽 서사와 개인적인 것의 정치성

박완서는 사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며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해 매진하는 억척 모성들의 사생활을 통해 여성의 근대를 보여준 바 있다. 해방세대 여성들은 한국 전쟁 이후 본격화된 개발의 열풍 속에서 능부(能婦)의 자질을 발휘해 가족의 신분 이동에 기여하면서 한국 근대화의 숨은 동력이 되었다.³²⁾ 여성에게 가족은 개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억압적 제도인 한편으로, 거리의 여자나 사회의 유령 신세를 면하고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는 보호처이기도 했다. ‘어머니’라는 지위는 여성에게 세상이 허락한 거의 유일한 사회적 권력이었던 것이다. 박완서는 억척 모성의 신화적 베일을 벗김으로써 근대화 1 세대 여성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성 글쓰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성을 ‘탐욕’이나 ‘반사회성’과 결부지어 사유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때 1980년대의 박완서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 방식이 성별 관계의 정치학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을 거느리고 있다는 데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존재 양태에 대한 신랄한

를 찾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한 셈이었다. 그것은 또한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절실히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어 고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강렬하고 진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멀리 못 미치는 졸작이어서 적이 당혹스럽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박완서, 『서 있는 여자의 갈등』,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94쪽.

32)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줄고,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9-66쪽.

해부를 넘어 여성 해방의 전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사생활(혹은 남녀 관계) 영역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새롭다고 할 수 없다. 가령, 가족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없어 아이를 들쳐 업고 집 바깥을 떠돌거나 불륜으로 배반의 탈주를 감행하는 여성의 이야기들은 한국의 여성문학에서 매우 흔하다. 여성 작가들은 ‘기출과 귀환의 서사’를 통해 여성의 정주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단단한 성체에 흠을 퍼듯 가부장제에 균열을 가하고 그 틈을 벌여 왔다. 그러나 박완서는 외출의 도발성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을 미성숙 상태로 묶어 두는 후견 제도와 문화의 조건들을 비판하며 자유를 향한 길 찾기를 시도한다. 1970년대 박완서의 여주인공들은 중산층 주부 노릇의 억압성과 공허를 견디지 못해 술을 마시고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등 일탈적 충동에 이끌리지만,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자유를 향해 걸어 간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시민의 신분/자격이 가부장인 남편에게 부여되고 여성은 그 가부장의 가족에 소속된 신분으로 먼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된 여성의 현실을 문제 삼는다. 근대 기획의 핵심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절차와 규칙, 제도를 구성해 나갔다는 것이다. 근대 국가는 모든 사람이 계급, 종교,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절대 왕정이나 봉건 사회와 구별된다. 이 새로운 정치체의 등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개체라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지만, 역사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깊이 사유하지 않았다.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체라는 계몽된 의식이 싹트고, ‘자기애’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이며 이것이 개인성의 기초가 된다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자연권과 계약론에 근거해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행복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³³⁾ 그러나 이때 사회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배제한 남성에 한정된 인간이었다. 근대 국가는 민법을 통해 법률적으로 정치 사회와 구별되는 가정 사회 개념을 확립시켰는데, 전자가 계약을 통해 성립한다면 후자는 자연적 질서를 통해 움직여지는 사회로 여겨졌다. 가정 사회, 즉 가족은 시민 사회와 별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곳으로 부계 혈연과 부권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를 특질로 한다. 이로 인해 근대 사회는 남녀의 가족적 신분을 차등적으로 규정짓는 성(性) 신분의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존립하게 된다. 가족에 존재하는 성 신분적 봉건 구조는 시민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시민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³⁴⁾

『살아있는 날의 시작』의 여주인공 청희는 대학원을 나온 재원이자 근면, 계획, 계산 등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미장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만큼 사회적 능력이 탁월하다. 더욱이 그녀는 비단 자기 경영의 능력이 뛰어난 경제적 개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장원 직원인 ‘콩쥐’가 겪는 계급적, 성적 고통에 대해 상상력을 기울여 ‘공감’을 시도할 만큼 도덕성이 높다. 청희는 경제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할 만

33) 서구 근대는 신중심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인간 중심의 세계로 재편성되면서 인간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체로 인식하게 된다.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 철학, 법률, 사회 이론 등에서 개인주의가 적극적으로 발현되며 ‘개인’은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는 미국의 독립 선언과 프랑스의 인권 선언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맨 앞에 놓게 만들었다. 서구 근대 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이 한국의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연합군에 의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해방을 맞은 한국은 미군정의 보호와 통치 하에서 서구 근대를 모델 삼아 공화국이라는 국민 국가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법을 통해 공권력의 개입이 없이도 아버지, 남편이 자녀들과 아내를 통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는 ‘젠더화된 공화국’이라는 한계를 안게 된다.

34) 시민 사회가 남/녀의 가족적 신분을 차등적으로 규정짓는 성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존립함으로써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시민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이영자, 『시민 사회와 성의 정치학』, 『현상과인식』 24(1·2), 2000, 43-45쪽.

큼 성숙한 부르주아, 즉 여성 시민인 것이다. 그러나 청희는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다. 마치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온갖 드러난 힘과 드러나지 않은 음모”(작가 후기)인 양 가부장적 가족 질서는 부조리하게 그녀를 짓누른다. 가령 그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지만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남편 현철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지방대 교수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편을 기죽이는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전전공공한다. 반면에 그녀의 남편은 미성년자인 콩쥐를 범하지만 자신이 초법적 주체라도 되는 양 자신이 저지른 일탈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기는 커녕, “날치는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며 초희의 분노를 혐오하고 ‘부덕(婦德)’이라는 가짜 도덕을 강요한다. 똑똑한 여자 초희가 가족 사회에서 겪는 억압은 시민의 권리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여성은 그러한 범주에서 배제된 채 남성 가장 시민에게 예속된 이등 인간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철은 이렇다 할 논리없이 가장이라는 가족 내 신분적 지위를 근거로 권위를 주장하며 청희에게 자신에 대한 의존과 복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청희의 살아 있는 날은, 자신의 집이 “미풍양속이라는 여자들만의 고가(古家)”이고,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주민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퇴락했다는”³⁵⁾ 것을 깨닫고 집의 균열을 메우는 대신에 스스로 집을 상실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청희가 자신이 집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상실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이가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비로소 빛 속에 서게 된 것과 같은 각성과 계시의 순간을 연상시킨다. 그녀는 집을 잃었지만 미성숙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 있는 여자』(1985)의 여주인공 연지의 이혼 역시 비극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연지는 이혼 후 노란 꽃다발을 사들고 남편이 떠나 텅 빈 자신의 아파트

35) 앞의 책, 383쪽.

로 되돌아 간다. 새 타이프라이터와 단순한 고독이 함께 하는 연지의 방은 고립된 여성이 구조를 기다리는 어두운 수렁이 아니라 타율과 지배를 벗어난 해방된 개인의 거처가 될 것임이 암시된다. 공간의 역사는 작은 공간조차 자기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부엌, 침실, 아이의 방을 오가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과 역사를 보여 준다. 근대의 역사를 살펴 보면 남성들이 스스로를 개인으로 선언하고 계몽의 철학을 통해 봉건제의 신분 질서의 허위를 비판하며 평등과 박애의 시민 사회를 구성해 간 데 반해, 여성들은 ‘자연이 준 천성’과 부덕 이데올로기 등 성차의 철학과 규범에 억눌려 공적 이성을 사용할 수조차 없었다. 연지는 아마도 어렵게 획득한 자기만의 방에서 근대 국가가 출발한 전제였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 선언에서 권리를 갖는 인간은 누구인지, ‘나는 과연 모든 인간인가’를 질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고유한 개인성과 그것이 지켜지는 삶을 꿈꾸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공동체주의가 강요하는 특정한(specific) 정체성, 즉 여성성 규범이라는 사회적 강요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향한 의지만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살아있는 날의 시작』은 여성의 구원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에서 온다고 말하는 듯 보인다.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시민의 권리와 시민들이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그리고 정치 체도를 통해 수립된 평등과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평등 사이에는 사실상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 중의 하나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여성 해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청희는 자신이 ‘콩쥐’라고 부르는 세상의 의붓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난한 여성들에게 무료로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는 후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빈곤의 여성 젠더화’ 현상이 말해주듯이 여성은 한 사회나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산자의 위치를 강요당하는 내부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청희는 콩쥐와 연적 관계에 놓이지만 그녀를 남편의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견지할 만큼 객관성

을 잃지 않는다. 청희가 유달리 높은 도덕성을 타고 나서가 아니라, 처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 자신의 이성을 기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받은 중간 계급 여성이라는 자본이 있어서 실패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싱글 여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청희와 연희 모두 자기 경영의 토대인 교양과 자본을 거머쥔 중간 계급이라는 점에서 박완서가 여성의 자유 획득을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 문제 해결을 자유의 선결 조건으로 인식하고, 경제적 자유를 후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청희가 친정 어머니의 유산인 집을 팔아 콩쥐에게 주고 미용실을 창업하도록 후원하는 결말의 급진성은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콩쥐리는 서발턴에게서 타자성을 제거해 순치시키는 부드러운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자매애에 근거한 급진적 상상력임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박완서는 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의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이른바 고무신 관객들을 사로 잡아 영화관을 통곡의 바다로 만들던 멜로드라마에 대한 패러디적 재현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 이혼녀인 문경은 연인이었던 문혁이 아들 혁주의 존재를 부정하자 모자(母子) 가정을 꾸리며 살아 가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문혁이 혁주에 대한 자신의 친권을 주장함으로써 아들을 뺏길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경은 싱글 여성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다양한 차별을 겪지만, 가녀린 몸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피해자의 전형을 벗어 난다. 문경은 비범한 개인이라기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보통 사람의 윤리 감각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그녀는 부조리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정신의 건강함을 지녔으며 육체 노동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수익을 늘려 갈 만큼 허위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 박완서는 ‘모성의 멜로 드라마’의 상투적 갈등을 차용하되 피해자 여성에 대한 사회의 극적 구조를 기대하기 보다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가족법을 통해 국가 없는 여성의 불안정한 시민적 위치를 보여준다. 문경은 싱글 맘이라는 취약한 조건에서도 문학을 무탈하게 양육하지만 민법은 사실상 그녀와 아들을 버린 혁주에게 친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의 가부장성을 스스로 폭로하기 때문이다. 부계중심주의를 채택한 법에 의해 문경은 문학을 혁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그녀를 구원한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한낱 우연이다. 문경은 오래 전 혁주가 문혁의 존재를 부정하며 보내 온 편지를 우연히 되찾아 아이와 가정을 지키게 된다. 이렇듯 우연에 의한 갈등의 해소라는 결말은 가족법의 남성중심성을 고발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소설은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을 통해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잘잘못을 표식하지도 바로잡지도 못하는 법의 무능을 통해 정의의 여성주의적 차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하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박완서 신드롬’을 낳으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보적 운동 사회는 전면적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진보적 여성문학론 측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나 1989년 부분적으로 통과된 가족법개정 등 일련의 사건을, 1987년 21개의 진보적 여성 단체들이 연대해 발족한 여성단체연합이 여성 세력의 조직적 결집에 성공한 긍정적 결과로 인정하면서도, 여성운동이 전체 변혁운동 진영에서 이탈해 자립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여성운동의 승리를 여성운동을 개량화하려는 국가의 의도로 본 것이다.³⁶⁾ 기실 이렇게 볼 소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의 권리 투쟁들은 기

회의 평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반체제, 반자본주의를 표방한 진보 운동과 구별된다. 1975년 이후 유엔의 권고를 받아 들어 남녀고용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을 손질한 것은 국가의 젠더 감수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근대가 사회적 생산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이미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의 흐름은 남성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중공업 분야에서 하이 모던의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새롭고 창의적인 인재로써 여성의 잠재성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 투쟁은 혁명의 상상 속에 여성을 초대하지 못한 진보 운동이 감당해야 할 결과였다. 1980년대 혁명의 동학 속에서 빈번히 호출되던 열사의 정치학이 보여주듯이 혁명은 남성적인 것으로 상상되었고, 민중 남성과 교양 부르주아 남성들의 브로맨스 속에는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시즘 국가는 사회를 초남성화함으로써 여성이 가장 큰 하층을 받게 된다고 여성학자들은 통찰했지만,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오목 렌즈 속에서 간혀 있었기 때문에 저항 공론장은 성(性) 신분의 문제를 비판과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정치 권력은 실제로 납치, 구금, 죽음 등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인구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권력의 실행’이라는 ‘통치’의 기술이 가족과 여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의 복잡성은 거의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못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진보적 공론장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유의 전망을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지식인 여성들은 ‘진정성의 언어’가 범람하며 도덕적 구별짓기가 이루어지던 대학에서 비천한 성 신분의 지위

36) 이들은 국가가 노동 약법 개정이나 국가보안법의 폐지 요구는 외면하면서도 여성들의 청원은 들어주는 것을 여성운동을 개량화하려는 의도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명호, 김희숙, 김양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67(1), 창작과비평사, 1990, 54쪽.

를 벗어나 탈성화된 인간 혹은 양심을 가진 지성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약속의 환상에 이끌렸지만, 허이퍼리얼한 성 신분의 현실에 처한 대학 바깥의 여성들에게 진정성의 언어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운동의 가장 자리에 존재하는 여성의 무리 혹은 여성운동의 이탈은 관객을 유령화한 데 따른 대가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장에서 여성은 섬광처럼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재가 되기를 반복하며 정치의 가장자리를 배회해 왔다.³⁷⁾ 특히 지난 20년 간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성이 사회와 국가를 대상으로 분배와 인정을 요구하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과하며 남성성 위기 공세가 전면화되자,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여파는 여성 혐오 현상으로 번져 여성이 친밀성 유무와 무관하게 칼부림을 당해 자기 장롱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부조리한 죽음을 맞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득권에서 배제된 남성들은 여성을 향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몰카, 공공 노출, 정액 묻히기 등으로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산 혹은 유일한 무기로써 남성성을 과시한다. 1948년생으로 지난 40년 간 일본의 신자유주의를 한국보다 먼저 겪어 낸 우에노 치즈코가 여성을 향해 “그저 세상 어디라도 좋으니 도망쳐서 살아남아주길 바란다”³⁸⁾고 할 만큼 여성의 ‘서바이벌’이 지극히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여성의 권리가 매우 취약한 사회에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으로 여성들이 조직하고 연대함으로써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을 짜는 일은 주요 모순이 아니라 기본 모순이 되었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은 진보적 공론장이나 고급한 문단으

37) 이 문장은 권김현영의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을 모방한 것임을 밝혀 둔다. 권김현영, 앞의 책, 137쪽 참고.

38) 우에노 치즈코, 박미옥 역,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썬더하우스, 2018, 360쪽.

로부터 유리되어 있었지만 저마다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갈망하는 동시대 여성 독자와의 정서적이고도 정치적인 동맹으로서 여성 공론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여성문학은 여성 작가의 약진이라고 할 만큼 문학 장의 중심으로 이동하며 문단의 마이너 신세를 면했지만, 얻은 것은 미학이고 잃은 것은 정치성이라고 할 만큼 “여성성의 우물에 빠진 채”(심진경) 여성 독자와의 연대를 상실하고 미적으로 자립화되었다. 그리고 마치 추방된 것이 되돌아 오듯이 오늘날 여성문학은 문학과 정치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며 문학 장의 바깥에서 문단을 질타하고 있다.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이 재론되어야 하는 것은,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다시 연결되어야 할 지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

박완서, 『서 있는 여자』, 학원사, 1985.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1989.

박완서, 『박완서의 말: 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박완서, 『서 있는 여자의 갈등』, 나남, 1986.

2. 단행본

권김현영,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 없다』,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 × 민주주의』, 교유서가, 2018, 137-176쪽.

여성사 연구 모임 길밖세상,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234-237쪽.

전경옥 외, 『한국 근현대 여성사: 정치·사회 2 1945-1980』, 모티브북, 2011, 183쪽.

우에노 지즈코, 박미옥 역,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챗터하우스, 2018, 360쪽.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106쪽.

3. 논문

김경연, 전승희, 김영혜, 정영훈,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 세계」, 『여성』 (2), 창작사, 1988, 235-236쪽.

김은실, 「여성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51, 새얼문화재단, 2006, 52쪽.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9-66쪽.

김종엽, 「분단체제와 87년체제」, 『창작과비평』 130, 창작과비평사, 2005, 12-33쪽.

이명호, 김희숙, 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 문학」, 『창작과 비평』 67(1), 창작과비평사, 1990, 48-74쪽.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1쪽.

이영자, 「시민 사회와 성의 정치학」, 『현상과인식』 24(1:2), 2000, 41-62쪽.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8(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3-41쪽.

이행선·양아람, 「루이제 린저의 수용과 한국사회의 '생의 한가운데': 신여성, 인생론, 세계여성의 해(1975), 북한바로알기운동(1988)」, 『민족문화연구』 7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67-303쪽.

최원식, 임영일, 전승희, 김명인, 「좌담: 민족문화와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59, 창작과비평사, 1988, 6-56쪽.

4. 좌담

고정희, 김숙희, 박완서, 엄인희, 조옥라, 조혜정, 정찬경, 「좌담」, 『또 하나의 문화: 여성해방의 문학』 (3), 평민사, 1987, 14-29쪽.

Abstract

Women's Political Revolution and Feminist Pamphlets as Writing: Pak Wan-sŏ's 1980s Women's Liberation Novels

Kim, Eun-ha

The writings of female South Korean author Pak Wan-sŏ were enthusiastically received in the 1970s by both the literary world and readers as a sharp criticism of capitalism. By the 1980s, however, she found herself a lonely writer in conflict with society. “The sadness of the survivors” weighed heavily on 1980s South Korean society. Pak Wan-sŏ states, “When this story [*The Beginning of Living Days* (1980)] was serialized, readers reacted with either strong criticism or cold indifference. It was a lonely work. I could either give into loneliness and compromise on subject matter, or resist softening the work and comfort myself with staying faithful with the message until the very end.” As Pak Wan-sŏ's statement indicates, amidst the pain of exceeding the possibilities of representations at the time, writing on the subject of “women” was not an easy task. Pak Wan-sŏ says, “Women's work had to call out and bear witness to this unfairness and injustice. I felt the fact of my own womanhood to be a more pressing problem than debates of women's issues.” Again, this statement from Pak Wan-sŏ stresses that compared even to radical positions, feminist positions were less heard in the 1980s South Korean public sphere and female writers had no choice but to insert their voices. Moreover, the either-or “discursive patriarchy” of progressive/conservative politics which

defined the 1980s presented women with another reality to deal with.

Pak Wan-sŏ's novels about women's liberation are important within South Korean women's literary history because they resisted compliance with convention and norms. Instead, her novels broke with the pleasure of escapism and presented the foundation of a female subjectivity that embodied the ideals of gender equality. Pak Wan-sŏ's thoughts on writing as either 'stone-throwing' or "the flattering of the vested interests of respectable men" reflects her concerns with the political nature of writing as feminist propaganda which corresponded to the struggle for women's rights that took off at the end of the 1970s and intensified in the 1980s. Instead of depicting the overblown and distorted fantasies of the social imaginary, Pak Wan-sŏ convincingly described women's lives as they really are while exciting a thirst for freedom. By encouraging readers to question deeply the world around them, she transformed the nature of female reading from one of compliance or escapism to one of discord and enlightenment. In the process she provided female readers with narratives which resembled their lives and could be used as opportunities to speak and debate with others. Pak Wan-sŏ's 1980s women's liberation novels are an instance of feminist writing which cannot be completely captured by the discourses of literary centrism, male-centrism, and elitism which dominate discussion of literature.

Key words : Pak Wan-sŏ, 1980s women's liberation novels, progressive public sphere, declaring the worldwide year of women, feminist pamphlets, feminist pamphlet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